

경유- LPG 가격 오를만큼 오른다!

석유공사, 2002년 1월보다 150원 높아 ... 자동차 연료비 부담 가중

원유 가격이 2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오르면서 차량용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가격이 최고가격 행진을 거듭중이다.

이에 따라 경유 및 LPG 차량 운전자의 연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2003년 1월 12-18일 전국의 주유소와 LPG 충전소를 대상으로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모니터링한 결과, 디젤차량용 경유의 전국 평균가격은 ㄹ당 762.38원, 차량용 LPG 평균가격은 ㄹ당 561.75원까지 각각 올랐다.

사상최고의 가격으로, 2002년 1월의 경유가격 597.91원과 LPG 가격 415.23원에 비해 150원 안팎씩 높은 것이다.

특히, 2002년 10월 들어 경유 및 LPG 값이 각각 ㄹ당 700원 선과 500원 선을 처음으로 돌파한데 이어 빠른 속도로 상승중인 것으로 분석됐다.

경유의 평균 판매가격은 2002년 1월 597.91원에서 2월에 600.11원으로 600원 선을 넘어선 뒤, 7월 698.63원, 10월 725.88원, 11월 752.05원으로 꾸준히 오르는데 이어 12월에 740.70원으로 잠시 하락했다.

그보다 앞서 1992년에는 평균 199원에 불과하던 것이 1995년 239원까지 오른 뒤, 1996년 301원, 1998년 554원, 2000년 613원, 2001년 645원, 2002년 678원 등으로 상승해 왔다.

또 LPG 값은 1999년 평균 고시가격이 282.2원, 2000년 358.7원이었지만 가격이 자유화된 2001년에는 평균가격이 440.0원까지 오르는데 이어 2002년에는 1월 415.2원, 3월 421.7원, 7월 470.9원, 10월 500.0원, 12월 544.3원 등으로 상승했다.

한편,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휘발유 가격은 1월 들어 전국 평균 1300원 선을 넘어선 가운데 제일 비싼 주유소가 1379원, 가장 싼 곳이 1209원이었다.

< Chemical Daily News 2003/ 01/ 30 >